

## ‘광주다움’ 시내버스정류소 내 무선충전기 이용률 낮아

대기 시간 짧고 고장나 편의 증진 취지 못 살려

동·남구 8곳 중 2곳 고장 불구 신고장치는 없어

“시내버스가 10분 내로 와서 정류소에 설치된 휴대전화 충전기 사용 잘 안 해요.”

편의를 위해 마련된 광주다움 시내버스 정류소의 충전 시설이 고장 나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다움 버스 정류소는 현재 시내 26곳에 있다. 교통 정보시스템, LED조명, USB포트, 무선충전시설, 경사판·점자 블록 등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에 동구 지산동 살레시오역과 광주다움 버스 정류소.

20분여 동안 버스 8대가 지나갔다. 정류소를 오간 시민 40여 명 중 단 1명도 무선충전기를 이용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평균 시간은 15분 안팎이다. 배터리 방전 등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USB포트·무선충전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학생 김모(14·여)양은 “통상 이용하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10분이다. 충전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한 달에 1번 가량 이용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의자 중간에 설치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걸터 앉기도 했다.

특히 광주 동·남구에 마련된 광주다움 버스 정류소 8곳 중 2곳의 무선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대학생 안모(23)씨는 정류소 내 충전대에 스마트폰을 3~4차례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자 멧쩍은 웃음을 지었다. “미작동 신고처를 알리는 홍보물·안내판은 없다. 김모(48)씨는 “추운 날씨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급한 마음에 정류소를 들러 무선충전기를 찾았지만 작동이 안 돼 답답했던 적이 있다”며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예산 낭비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다움 버스 정류소의 설치비용(1곳당 1400~2800만 원)은 기존 정류소(800~850만 원)에 비해 2~3배 비싸다.

광주시 관계자는 1일 “각 구청이 협력업체에 유지·보수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미작동 부분은 자치구별 보수·관리 현황을 파악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다움 정류소는 장소별 상징성(5·18 총현탑, 무등산 등)을 담은 디자인을 적용, 내외국인에게 광주만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취지도 있다. 예산 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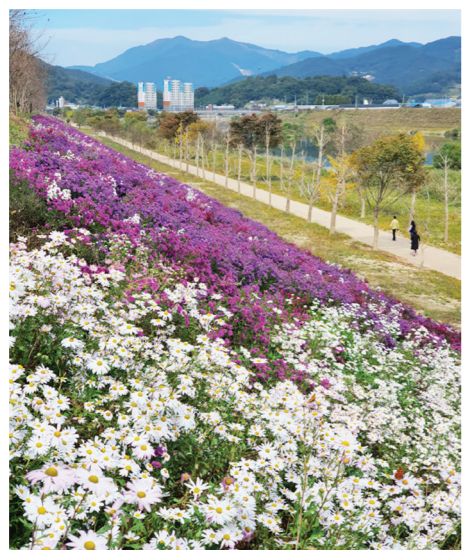
지난 10월30일 광주 동구 서석동 ‘광주다움’ 한 버스 정류소에서 한 시민이 작동을 멈춘 무선충전기에 케이블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원을 투입해 28곳에 추가 설치된다.

정승호 기자

## “그저 걸었을뿐인데 마음을 채우다”

### 곡성 대항강 자연휴식공원



처음으로 경험한 ‘코로나19’시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불안감을 쌓여만 가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 ‘한국관광공사 주관 가을 비대면 여행지 100선’에 선정된 곡성 석곡 대항강변은 조용히 걸으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낯설음과 가을 정취를 제공한다.

### 한국관광공사 주관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 생태성 높고 계절별 벚꽃·구절초·코스모스 등 만개

이번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기준은 ▲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 개별여행 및 가족 단위 테마 관광지 ▲ 자연환경이 중심인 관광지 ▲ 단풍 및 가을테마에 부합한 관광지 등의 기준을 검토해 선정됐다.

곡성 석곡 대항강변은 곡성군 석곡면 석곡2길 13 일대에 위치한 수변공원으로 생태성이 높고 석곡천과 대항강의 합류점으로

계절별로 벚꽃, 양귀비, 구절초, 코스모스 등을 활용한 경관식재 및 산책로가 조성되어 걷기 좋은 길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어우러진 강변이다.

곡성군은 “이번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및 생태도시로서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석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대항강 수변벨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저 강변을 걸어보며 푹푹 날아드는 대항강의 위로에 코로나 시대 자신이 가진 불안과 슬픔이 희석되는 체험을 해

보고 싶다면, 이번 가을 곡성군 석곡면 대항강변을 산책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블로그 및 자체 여행주간 웹 ▲ 주요 포털사이트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한다

정세균 총리 “단계별 방역 강도 큰 차이 보완...방역효과 제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듬발언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된다”며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할 것”이라며 다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인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백명을 넘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하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훈호 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